

의사 결정과 기도의 역할

성경말씀: 잠3:5-6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간다.

성경 말씀은 온전하게 한 책으로 되어 있으므로 성도가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 문자적, 역사적, 시대적, 수신자 등을 잘 구분해서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삶의 모든 양식이다(마4:4).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잡이

보통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한다. 호흡이 멈추면 죽듯이 기도가 없으면 죽는다(?) 제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미숙아/기형아가 된다.

기도(pray)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간청하는 것

왜 구하는가? 그분의 나의 창조자, 주인시므로 구한다. 나는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겸손히 받아야 하며 동시에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한다. 낚시꾼과 낚시대, 낚시대는 주인이 있는지 모른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낚시대와 비슷하다. 구원받은 사람은 일단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지 않고는 구원 불가능,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 부모자식 간의 관계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예비한다(고후12:14). 다만 자식은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부모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려고 한다.

부모에게는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아이가 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뜻을 모르고 대개 자기 뜻만 이루려고 한다. 커서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순종하려 한다.

부모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려면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는 성경 말씀과 심히 다르다.

표준 양식의 기도문이 없다. 사람, 상황, 해결책이 다 틀리다.

그래서 모든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크게 혼동하는 것이 기도이다.

E.M. 바운즈의 기도 시리즈 등을 보면 양이 많아(성경처럼 두꺼움) 기가 막힌다. 언제 그것을 다 배워서 기도하겠는가? 마르틴 루터는 무릎 꿇고 하루에 3-4시간 기도해서 낙타 무릎이 되었다. 주눅든다. 이렇게 어렵다면 어떻게 기도하겠는가?

기도는 크게 생명과 의식주와 관련된 것과 의사 결정과 관련된 것이 있다.

1. 아브라함과 사라, 삼손의 부모,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상속자 아들을 구함
2. 히스기야(병), 마가복음 9장의 아버지(마귀)
3. 엘리야 수넵 여인의 아들: 죽은 아이를 살려줄 것
4. 엘리사와 과부의 기름: 먹고 사는 것
5. 예수님 때에도 여러 사람들이 의식주, 병, 마귀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와 기도하고 해결 받았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급한 상황일 때 절실하게 기도한다.

불신자도 의식주와 관련 있는 어려움을 당하면 특히 죽음과 관련된 병을 만나면 신을 찾는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특권이 있다(히4:14-16; 요일5:14).

이런 의식주 문제에 관한 한 예수님은 분명한 해결책을 주셨다(마6:31-34).

그러므로 의식주 문제에 관한 한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의사 결정과 기도

이런 것 말고 의사를 결정해야 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대학교, 직업, 배우자, 이혼, 이사, 교회, 성경 등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결정: 성경이 명백히 말하는 것 혹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씀이 암시하는 것 안에서 결정하는 것

그렇다고 기도와 믿음 없이 냉철히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

의사 결정: 기도, 이성, 믿음(잠3:5-6)

좋은 의사 결정을 위해 성경이 있는데 왜 기도해야 하는가? 혹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 기도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잠28:9).

어떤 기도는 성경의 충분함을 부인한다: 특히 무슨 계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내게만 몰래 알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보고 손가락으로 떠먹여달라고 떼쓰는 것,

지금도 계시가 지속된다는 생각

우리는 성경 말씀 이외의 다른 부가적인 인도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딤후3:16-17을 부인하지 않는 기도

여행지로 떠난다. 부산으로 간다. 수원, 천안, 대전, 대구, 부산

부산에 다다르면 멈추어야 한다. 거기가 목적지이므로

성경의 계시 역시 진보한다. 그 목표는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 이전에는 꿈, 기적, 직접 계시 등이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다다른 이후에는 모두 멈추어야 한다. 다시 말해 계시록 22장 21절로 계시는 멈추어야 한다. 심지어 계시 추가와 삭제에 대한 경고(18-19)

히1:1-2, 막9:7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에 관한 한 그리스도에게서 멈추든지 아니면 계속 나가든지 둘 중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로부터 만나는 그치고 그들은 그 땅의 곡식을 먹어야 했다.

만나는 기적이다. 그러나 그 땅의 곡식은 수고를 통해 얻어지는 산물이다.

만나가 끝난 시점에 만나를 달라고 하면 미성숙함의 증거요, 불신의 증거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간증: 이미 끝난 만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 꿈, 계시 등

나의 판단: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 일생에 한두 번 그에게 무언가를 주실 수 있다(떼쓰는 아이).

그래서 그가 킹제임스 성경의 진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거기서 끝을 내야 한다. 그러한 경험이 그의 삶을 주관하고 그의 믿음의 기초가 되며 다른 사람들도 그런 데로 이끌면 결국 그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자가 된다.

실로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히11:1). 히11은 시작부터 끝까지 믿음 이야기

믿음이란 무엇인가? 보지 않고 통찰력으로 확신하는 것(고후5:7), 롬1:16-17

그러므로 무언가 새로운 계시를 찾아다니는 이들은 실제로 자기 욕정을 추구하며 이런 자들에게 마귀는 그런 신비로운 경험들을 가져다준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아들에 의해 완성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인도>(피터 블룸필드)

기도의 역할

1. 성경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 기도한다. “제가 내리려는 결정과 관련해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게 해주세요.”
2. 결정을 내리려는 상황들을 바르게 평가하기 위해 기도한다. 지혜와 분별력, 우선순위, 결정의 결과들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 대안들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유용하고 실제적인가 평가
3. 성경에 복종할 수 있는 겸손과 영적 훈련을 위해서 기도한다.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의 본성과 반대가 될 수 있다. 예: ‘불신자와의 결혼’, ‘꿈과 계시를 찾는 것’, 내게 맞는 선택이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 있다. “내 가족을 위한 최선의 결정은 무엇인가? 내가 내리는 결정이 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4. 하나님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은 자신이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우리의 길에 복을 주실 수도, 길을 막으실 수도 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욥1:21
5.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의 표현(엡1:15-19)